

北海유전의

原油 생산현황과 전망

1986年 北海의 原油생산은 油價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보다 12만2천b/d(3.5%) 증가하여 356만5천b/d가 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英領北海는 전년 대비 3만b/d(1.2%) 감소했으나,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에서 전년을 상회하여 증산함으로써 英領의 생산감소를 상쇄하여 전반적으로는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表-1 참조).

그러나 <표-1>에 따르면, 86년의 油價하락 영향이 英領이외의 국가에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86년 1/4분기까지는 각국이 거의 생산피크를 보였으나, 2/4분기 이후에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대부분이 생산감소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英領 및 노르웨이領 北海의 近況을 알아본다.

1. 英 國

今年에 들어 英領北海의 원유생산량은 250만b/d線에서 추이되고 있는데, 1/4분기의 原油생산량은 256만4천b/d로 전년동기에 비해 감소되었다. 따라서 지난 86년 1/4분기 피크時와 같은 수준의 생산으로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87년이후 英領北海의 원유생산은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금년 5월 英國에너지部 발표에서도 향후 5년간의 원유생산을 <表-2>와 같이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原油생산이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은 油價의 영향도 있으나, 그보다도 英領北海 원유생산의 主宗을 이루는 Ninian 油田 및 Forties 油田이 老朽化됨으로써 生産이 漸次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表-1> 北海의 國別原油생산추이(1984~86年)

(단위 : 1,000b/d)

	英 領	노르웨이領	덴마크領	네덜란드領	計
1984	2,548	725	47	-*	3,320
1985	2,579	805	59	-*	3,443
1986	2,549	876	74	66	3,565
86年 1/4分期	(2,726)	(890)	(76)	(69)	(3,761)
2/4分期	(2,433)	(681)	(73)	(66)	(3,253)
3/4分期	(2,581)	(922)	(75)	(64)	(3,642)
4/4分期	(2,456)	(1,013)	(71)	(64)	(3,604)

註) *表示는 計數를 入手하지 못했음을 나타냄. 단, PIW誌에서는 1985年 네덜란드領의 生産량을 45.9萬 b/d로 추정하고 있는데 同誌의 1985年の 北海 전체의 生産량은 이 표의 수량과 거의 같음.

〈表 - 2〉 英領北海의 生産展望

(單位: 萬b/d)

	生産量
1987年	233~264
1988年	213~253
1989年	193~243
1990年	172~233
1991年	142~213

그래서 英國정부는 이러한 생산감퇴경향을 저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① 原油回收率을 높이기 위해 이에 소요되는 투자에 대해 稅制上的 우대조치를 취한다. 英國北海의 회수율은 평균 45%로서 이미 높아졌는데 향후 더욱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② 신규 유망광구의 공개를 적극 추진한다. 예컨대 第1

0차 광구공개는 금년 2월 17일에 마감했는데, 부여된 51광구는 대부분이 성열지역에 있으며, 既發見油田에 인접한 광구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英國에너지부는 이 광구 부여에 의해 英領北海의 탐사활동은 종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 노르웨이

노르웨이의 86년 原油생산은 전년비 11.5% 증가, 英國과 대조적으로 향후에도 늘어날 전망이다. 87년 1월현재의 既存原油매장량에 있어서도 英領의 130억배럴과 거의 비슷한 량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을뿐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英領을 능가하는 보유량이 예측되고 있다.

금년 4월 10일에 入札이 마감된 제11차 광구공개에는 BP, Conoco등 12개사가 응찰했는데, 전체적으로 北海원유생산은 90년 중반까지 350만b/d의 생산수준을 유지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

